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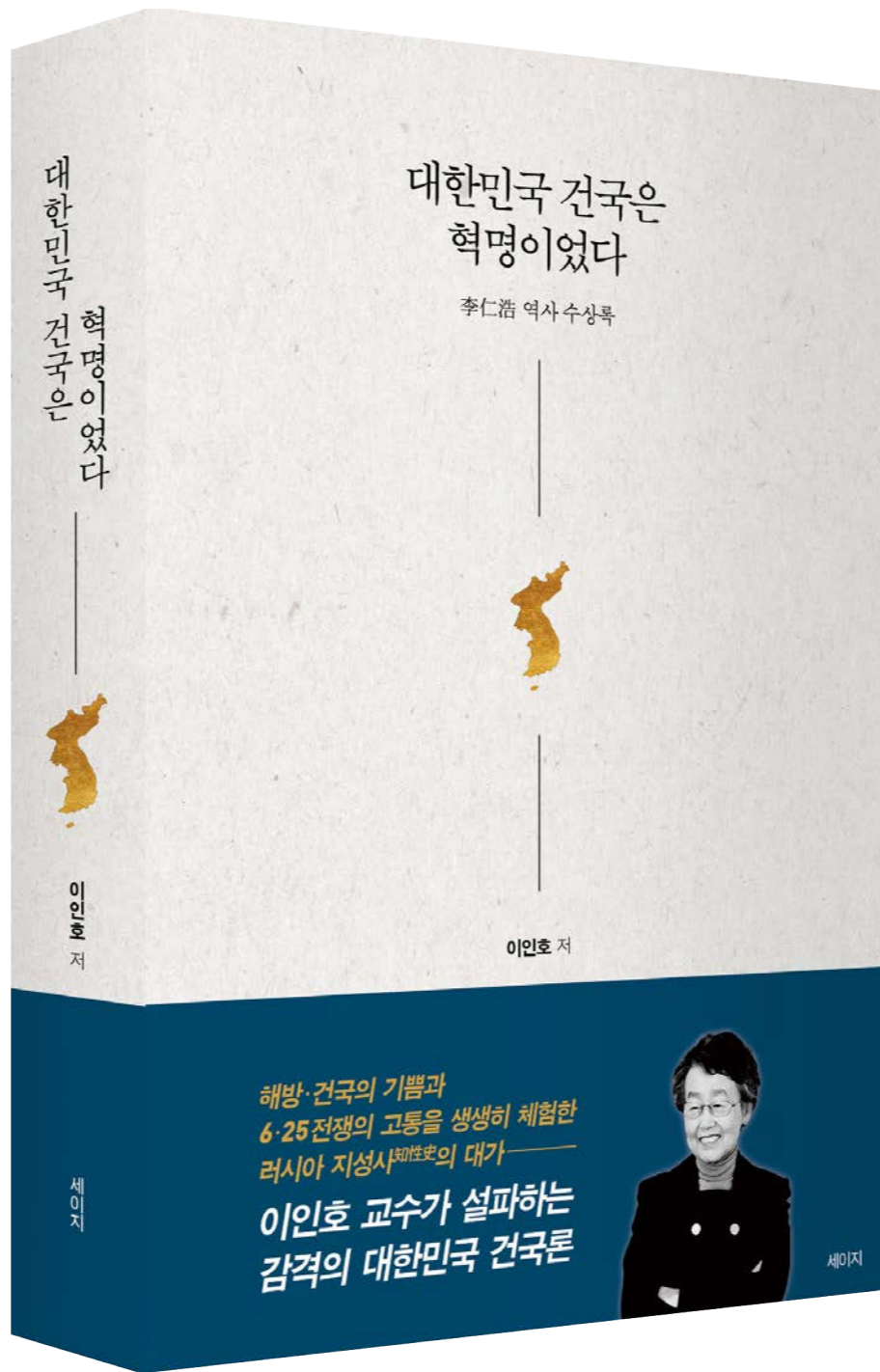
“
이 시대의 한국인은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

이인호 교수의
정통 건국론

VON뉴스
심층 인터뷰 수록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지는 혁명적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제와 미군정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재생하여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는 주권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왕조시대의 백성이나 일제하의 차별받는 식민지 '신민(臣民)', 미군정 치하 '패배한 적국의 전 식민지 시민(市民)'의 처지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國民)'으로 승격했으며, 바로 그 국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는 그러한 공화국이 채택한 국가 이상과 이념이 공산주의나 군국주의식 집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하고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였다는 점이었다. 이 세 가지가 다 바로 그 직전까지 있어왔던 정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완전히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혁이었으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이전으로 회귀하기는 결코 불가능한 명확한 혁명적 구분선이 그어진 것이었다. — “혁명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44쪽)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은 또 다른 직접적 차원, 곧 정치적 차원에서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와 전체주의의 갈림길에서 방향이 그 싸움의 결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새 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역사 변화의 격랑 속에서도 통합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인문학의 중추로서의 역사학과 오늘의 현실” 중에서(235쪽)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이념으로 하는 독립국가로 수립되어 유엔의 공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국가였다. 하지만 태생에서부터 공산권의 집요한 대내외적 파괴공작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무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었고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가치를 훼손시키게 되는 악순환을 안고 살아야 함을 의미했다. — “지식인과 역사 의식” 중에서(195쪽)

4·19봉기는 원래 이승만이 주동하여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잡자고 하는 동기에서 촉발된 충정 어린 의거였지, 대한민국을 뒤엎자는 혁명이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그 후속 정권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 위에서 이승만 정부가 미처 다하지 못한 민주국가 건설과 수호, 발전의 과업을 계승한다는 애국 정신을 발휘하기보다는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를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만이 마치 자기들의 존재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일인 듯 착각했다. 그런 알팍한 정치적 계산에 함몰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초석을 마련한 반공 정치지도자로서의 이승만뿐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의 역사적 업적까지, 기리기는 고사하고 등한시하거나 폄훼하기 시작했다. — “왜 다시 이승만인가” 중에서(70~71쪽)

이인호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전 러시아 대사 지음 | 값 20,000원

1936년생이신 이인호 교수님은 지금도 젊은이보다 빠른 걸음으로 다니시면서 어디서든 대한민국 건국은 위대한 혁명이라는 사실을 후대를 위해 목소리 높여 설파하십니다. 이 분이 말하는 ‘대한민국 건국혁명’이란, 그 분 자신의 생애의 주제인 러시아혁명보다, 서양사의 랜드마크처럼 버티고 있는 프랑스혁명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 편집자 리뷰 중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직접 구매: 010-5693-8219(문자)

도서출판 세이지에서 출간한 책들

<p>에너지 국제정치학 외교 현장에서 쓴 에너지 국가의 생명선</p>	<p>세기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 원래: 권정생 회고록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p>	<p>잃어버린 딸들 오! 해원규원 유족수용소의 아픔속으로 끌려간</p>	<p>한반도에 지저스(웨이브)가 온다 주사와 세대의 운동권 정치를 넘어설 묘수를 담은 김성욱의 외침</p>	<p>로버트 박의 목소리 Stop Genocide!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해체시키기 위해 몸소 북한에 들어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외친 로버트 박의 정신과 경험을 담은 책</p>	<p>해커의 지문 발견기 4.15 총선 결과 데이터 속에 적혀 있는 인멸될 수 없는 증거를 추적하여 배춧잎투표지 등 이상 투표지 출생의 비밀을 밝힌 책</p>
<p>에너지 국제정치학(에너지 국가의 생명선) 주요 정책 현안인 에너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다룬 현직 외교관의 에너지 외교를 위한 백트북. 박준서 지음</p>	<p>세기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 북한 문헌을 일일이 비교 대조함으로써 김일성 회고록의 조작과 왜곡의 실상을 철저히 파헤친 독보적인 백트체크 분석서. 이명영 지음</p>	<p>잃어버린 딸들 오! 해원규원 북한 요덕수용소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오길남 박사 일가의 비극을 담은 책. 영화 《출국》의 원전. 오길남 지음</p>	<p>한반도에 지저스(웨이브)가 온다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 『북한을 선점하라』의 저자가 내놓은 주사와 운동권 정치를 극복할 묘수를 담은 책. 김성욱 지음</p>	<p>로버트 박의 목소리 Stop Genocide!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해체시키기 위해 몸소 북한에 들어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외친 로버트 박의 정신과 경험을 담은 책. 박현아 편저</p>	<p>해커의 지문 발견기 4.15 총선 결과 데이터 속에 적혀 있는 인멸될 수 없는 증거를 추적하여 배춧잎투표지 등 이상 투표지 출생의 비밀을 밝힌 책. 로이킴 지음, 김미영 정리 및 해설</p>